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호스피스 병동 환자의 소망 “환아 돕고 싶어요.”

이들을 낳은 지 100여일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은 입원 후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다는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이에 '새 삶 후원회'를 통해 500만원을 기부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의 치료비로 도움이 되었다.

▶ 통증캠페인&3권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행사

6월 9일 본원 로비와 맞춤형 암치유병원에서 통증캠페인을 진행하여 OX퀴즈, 리플렛 배포 등 통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였다. 10월 27일 3권역 8개 기관이 함께 계양산 부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홍보 및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선서식



7월 11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선서식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보호자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FOOD THERAPY'

매월 1회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의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 FOOD THERAPY를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메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빈속을 든든히 채워드리고 있다.

▶ 제 1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 실시

9월 18일~10월 30일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49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입관 체험과 유서작성 및 실습보고, 수료증 전달을 끝으로 교육을 마쳤다. 한 교육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문인력들의 노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진전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참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



진전에 참여하였다. 12월 4일 국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본원은 12월 11일부터 일주일간 1층 로비에서 사진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였다.

▶ 인천교구 연령회 2차 심화교육 실시

9월 2일~ 9월 23일까지 인천교구 연령회를 대상으로 2차 심화교육이 인천교구청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사별관리의 실제 등에 대해서 전하면서 연령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되었다.

▶ '모현상실수업' 사별가족 돌봄 교육 참여

매년 모현 상실수업을 통해 사별가족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별가족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따뜻한 하루'의 칭찬 꽃 릴레이 캠페인



(사)따뜻한 하루의 칭찬 꽃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본원 호스피스팀이 릴레이의 주인공이 되어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호스피스팀 소식이 창간호 발생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따뜻한 하루 관계자는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전해주었다.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9월 대상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송해공원(옥연지), 사문진 나루터, 강정보로 나들이를 가서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추모행사를 가졌다. 병원사
 목 이종민 신부님의 꽃 봉
 헌을 시작으로 가족들이
 꽃·초 봉헌을 하고 다 같
 이 연도를 드렸다. 병원 사
 목 3분의 신부님께서 미사
 를 집전하시고,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고, 작은 음악회와 편지쓰기 등 선종하신 분
 들의 천상영복을 빌었고 오신 사별가족들이 초대해 주어
 고마워하시며 축복받았다고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꼈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

▶ 자원봉사자 피정



9월 18일 “이런 믿음을” 주
 제로 밀양 맑은 하늘 피정
 의집 에서 실시, 자원봉사
 자 27명이 참석, 일상은 물론 봉사자의 자리에서도 잠시
 비켜나 자신을 관조하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으로 “저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수녀님의 말씀과 더불어
 자연이 주는 감동도 배가 되어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 추석 이벤트: 송편나누기&게임

10월 2일 한가위를 맞아 병동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마
 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병동의 팀원들도 행복한 동행
 자로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누리며 투호, 고리 던지기를
 하면서 웃음과 즐거움, 활력을 가지며 풍요로운 한가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 2017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10월 24일 사별가족 모임 중 연간 사별가족을 모두 초대하
 는 자리로 사별가족 41분과 팀원, 자원봉사자, 병원관계자
 들이 함께하는 성대한 시간이 되었다. 추모미사와 뷔페 식
 사, 공연 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
 떠나신 분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며 살아
 있는 우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제 8회 사진전



10월 16일~24일 본원의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
 에 호스피스 관련 30점의
 사진을 전시, 호스피스센터에서의 환자와 보호자들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와 소중
 함을 느끼며, 이벤트로서 관람 고객들에게 즉석사진을
 제공하여 추억 만들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 5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



10월 18일 국립암센터와 보
 건복지부 주관으로 완화의
 료 주간 호스피스의 날 행
 사에 참석. 본원의 우수자원봉사자로 김영희, 김진순,
 이영숙, 장해경, 허정미님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김영희
 봉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받았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

▶ 제23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8월 9일~8월 11일 부천성모
 병원 대강당에서 총 94명이
 수료하였다. 매년 100여 명
 의 수강생을 받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알림과 홍보 및
 봉사자 양성의 시간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 알고 가세요’ 일일찾집 홍보캠페인



10월 26일 부천성모병원
 2층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환자 및 원내 교직원들에
 게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
 식 전환의 시간이 되었다.

▶ 사별가족 추모제

11월 4일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옴니버스에서



2017년 임종환자 23가족이 오셔서 고인에 대한 추모제를 가졌으며, 나눔을 통해 서로의 힘들을 들어주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 후원회 홍보 주간 행사



6월 12일~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기 암 환자 가족지원을 돕기 위하여 호스피스 후원회를 홍보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병원에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호스피스 후원회 신규회원으로 총 71명이 가입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MT

7월 1일~2일 팀원들의 소진예방과 친목도모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MT를 다녀왔다. 각 조별로 계획을 세워 부산 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태종대 수국 축제와 감천 문화마을 방문 사진 촬영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팀원들은 정서적으로 환기되는 시간을 보내고 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나누며 의미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

▶ 호스피스 봉사자 정년 퇴임식



9월 15일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올해 각 21년 5개월, 5년 7개월 동안 봉사해 온 서은경, 박미리 봉사자의 정년 퇴임식이 열렸다. 퇴임 봉사자의 활동 사진 감상과 그간의 호스피스에 기여한 바를 기리며 감사패와 기념 반지를 선물하였다.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준 마음에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동료 봉사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 하반기 사별가족 모임



11월 16일 직전 6개월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사별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별가족 모임이 개최되어 총 32명의 가족이 참여하였다. 추모예식에서는 고인 영상 감상과 고인에게 전할 메시지를 종이배에 적어 접고, 띄우는 봉헌이 진행되었다. 사별 유형별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 깊이 공감하며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호스피스 교직원 및 봉사자들도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성가롤로병원

▶ 제14회 호스피스 일반인 교육

8월 22일~2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일반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 추석 한가위를 앞둔 송편 빚기



10월 2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송편 만들자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들 웃으면서 보호자들은 한자리로 모여 새하얀 반죽을 요리조리 빚어가기 시작했다. 누가 더 잘 만드나 내기도 하면서 함께 웃는 모습이 그 시간만큼은 다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서로 자라 온 환경은 다르지만, 추석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통해 각자의 추석에 대한 추억을 말하고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송편을 빚었다. 호스피스 병동에 이벤트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잠시 쉴 수 있으며 기분전환이 된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식사를 전혀 안 하시던 환자분께서 보호자가 만든 송편을 한입 베어 먹고 너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

락을 들어 올리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진 예방 교육 -교류분석으로 본 나와 너 나를 알면 네가 보인다-



11월 13일 교류분석은 인간의 의식적인 변혁과 행동의 변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기와 타인의 관계 이해에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의 성격과 성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 설정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틀림이 아닌 다름을 더욱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성지순례



9월 8일 센터를 위해 수고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리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김대건 신부님의 굳은 신앙을 가슴 가득히 담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 센터 개원 10주년 감사미사



10월 13일 센터 트랙에서 개원 10주년 감사미사를 한만옥 신부님과 김성길 신부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축복을 전했다.

▶ 사별가족 모임 “뜨락”



10월 21일~11월 25일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센터에서 사별가족 모임 “뜨락”을

진행하였다. 추모 미사와 음악 치료, 피규어 테라피, 오감 테라피, 고인과의 추억 나누기, 1박 2일 여행 등을 통해 사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지지를 받는 시간이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6월 8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통증 교육과 함께 통증자·배지, 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암성통증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3차·4차 사별가족 모임



6월 14일, 9월 13일, 11월 22일 고인을 기억하고 사별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 미사와 마음 나누기, 미술요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위안과 격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1권역 모임

6월 16일, 8월 25일, 12월 8일 호스피스의 서비스 질 관리와 팀원 소진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10개 기관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보수교육



6월 29일, 9월 8일 ‘호스피스환자 증상관리’와 ‘임종간호’, ‘섬망과 치매의 차이’를 주제로 호스피스환자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있는 봉사를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 한여름의 작은 음악회

7월 21일 무더위에 투병 중인 환자와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 첼로연주자의 정성 가득한 공

연이었다. 일반 병동 환자들도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기쁨이 배가 되었다.

▶ 초복 수박 나눔 / 말복 맞이 가족 식사

7월 12일, 8월 11일 초복에는 시원한 수박 나눔을 하였고, 말복에는 여름 더위와 환자 간병으로 지쳐있는 가족들이 삼계탕을 통해 보양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가족 식사를 진행하였다.

▶ 소원성취 프로그램 “심청이 여기 있어요~”

(간절한 이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을 시행해 주는 프로그램)

8월 14일 반려견을 만나고 싶어 하던 환자가 반려견과 만나 짧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9월 14일 전문 사진가의 손길을 통해 근사한 가족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해드렸고, 잊지 못할 가족사진으로 간직하게 되었다며 매우 행복해하셨다.

▶ 추석 맞이 가족 식사 / 굴 나눔

10월 2일, 10월 17일 추석을 맞이하여 환자를 찾아오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가족 식사를 진행하였고, 제철을 맞은 굴을 함께 나누며 추석 명절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 빼빼로 데이 행사

11월 10일 다양한 빼빼로를 준비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원하는 빼빼로를 골라 서로에게 선물하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성빈센트병원

▶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제



11월 4일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성빈센트 드림 자비의 수녀원 강당에서 제16회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총 61명

의 사별가족이 참여한 본 행사는 수원 가톨릭대학교 노희철(베드로) 신부님의 미사로 시작되었다. 또한, 삼성 디지털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팀의 위로 공연과 서영신 미술치료사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미술요법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을 추모하고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홍보 행사



10월 17일 본원 1층 외래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캠페인을 하였다. 입원 환우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실시하게 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영화 상영



8월 10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빈센트 극장'을 준비하였다. 이는 평소 영화를 좋아하던 환우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보고 싶어 하던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하였으며, 다른 환우 및 보호자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여의도성모병원

▶ 자원봉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

9월 4일~5일 상지 피정의 집으로 1박 2일 피정을 다녀왔다. 센터장이신 안중배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 및 봉사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3분기 사별가족 모임

6월 20일, 9월 19일 1, 2회의실에서 2분기 때는 총 6가



족, 3분기 때는 총 4가족이 참석하셔서 인형치료 및 나눔, 미사를 통해 상실의 아픔과 고인의 추억 등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 **추석 맞이 행사**

9월 29일 병동환자와 보호자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10월 24일 2층 로비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호스피스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룰렛을 돌려 문제 맞추기, 원예요법, 미술요법을 직접 체험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총 200여 명의 내원객이 참여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 **2017년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7일 [2017년 자원봉사자의 날]로 총 35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1년 동안 봉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들으며 마음의 치유 시간을 가졌고 이후 센터장이신 안중배 신부님의 집전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 2명의 퇴임 봉사자가 참석하셨고 3명의 개근상, 16주년 봉사자 1명이 수상을 하였다.

익산성모병원

▶ **교육**

8월 22일~11월 7일 모현 상실수업에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1인, 자원봉사자 1인이 참석하여 수업을 받고 수료하였다. 10차에 걸쳐 받으면서 앞으로 사별가족 모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 **소진 프로그램**



8월 30일~11월 1일 팀원들의 소진 프로그램으로 집단 상담이 8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후 4시~5시 C.G.Jung의 심리 유형론과 MBTI를 중심으로 자아발견을 통해 타인을 이해해가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발 마사지 교육을 4회에 걸쳐 7분이 이수하였다.

▶ **해바라기 병동 1주기 기념**



9월 22일 노인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1주기를 맞아 병동에 조촐한 기념행사가 있었다. 환자,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장영선 병원장 수녀와 박상훈 과장의 1주기 축하 말씀이 있었다. 1부 자원봉사자들의 축시 낭송, 오카리나 독주, 독무, 합창(직원, 수녀) 2부 다과와 나눔이 있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주간 행사**



10월 14일 전북 지역암센터와 함께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주간 행사에 참여하였다. 모악산 입구에 각 부수를 마련하여 기관 배너 설치와 홍보 리플렛, 홍보 물품을 소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알리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관소개 상담이 있었다.

▶ **호스피스 상실가족 모임**



10월 28일~12월 2일 호스피스 3차 상실가족 모임이 가족 4분과 함께 6회 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5회 차에는 장항에 아리랜드로 1박 2일 여행을 단행하여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과 친정집 같은 포근한 잠자리, 염색, 아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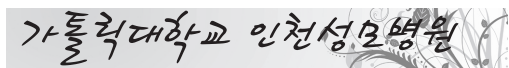
발 마사지, 꽃차 마시기, 풍등 날리기, 옷놀이로 끈끈한 유대를 다지고 마지막 6회기에는 예쁜 찻집에서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친밀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들을 나누었다.

▶ 자원봉사자 피정

12월 8일 자원봉사자 8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웃음치료와 함께하는 음악 피정이 있었다. 1부 임동훈 선생님의 웃음치료와 break time, 2부 작곡가이며 가수로 활동하는 최현숙님과 유선영님, 엔지니어 박순용님이 1인 조가 되어 음악을 통한 신앙 간증으로 봉사자들 마음에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 의료기기 기증

12월 28일 익산시 로터리 클럽에서 해바라기 병동에 필요한 전동식약품 주입기 2대와 혈중산소포화도 측정기 1대를 기증해 주셨다.



▶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



9월 27일 추석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추석을 맞이하였다.

▶ 가정호스피스 환자 소원 들어주기



9월 29일 가정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소래포구로 나들이를 나갔다. 바다를 보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홍보 캠페인

10월 27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계양역

부터 계양산까지 2017년 호스피스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을 3권역 8개 기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 전체 사별가족 모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사별가족 모임(희망가족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11월 11일 진행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별한 가족 28명이 참여하였고, CJ 프레스웨이의 함께하는 쿠킹 프로그램, 하모니카 공연, 고인 및 가족들, 혹은 나 자신에게 편지쓰기 등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의 율동 등을 구성하였다. 정성껏 준비한 점심 대접과 좋은 시간을 통해 큰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받는 시간이었다.

▶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우수자원봉사자(국립암센터 주관)에 유재문(아가다), 이광숙(소화테레사) 님이 수상했다.



▶ 호스피스의 날 기념 사진전



10월 17일~18일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인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O, X 퀴즈와 기념품 증정, 스토리 사진전, 차 한잔과 함께 하는 호스피스, 작은 나눔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본원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 사회복지사 박기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10월 18일 제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2009년 호스피스기관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업무를 함께 하여 많은 수고를 함에 공로를 고려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 호스피스팀원 소진관리



10월 19일 호스피스팀원이 함께 소진관리를 위해 야외 나들이를 갔다. 지도신부님의 기도와 사회복지사의 성지에 대한 설명, 봉사자의 재치 있는 사회와 율동을 겸비한 레크레이션도 겸하였다. 도착한 거제 윤봉문 요셉성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거제 바다가 아우르고 있는 곳이었다, 현지 신부님의 알찬 강론 말씀, 거제 성당 부녀회 봉사자들의 맛 난 식사, 곳곳이 돌레길의 산책로까지. 우리는 소진관리에 충분한 곳을 택하였고, 힐링의 가을을 만끽하고 온 하루였다.

▶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11월 9일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긍정 심리를 기반으로 한 강점 찾기'라는 주제로 오은정 강사님을 초대하였다. 이번에는 호스피스와 일반봉사자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 자신의 긍정 강점을 찾아 '강점 살리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반응이 무척 좋았다.

천주의 성모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별가족 모임



6월과 9월에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 하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격려하는 시간으로 부채 만들기 및 다도 프로그램으로 지지하였다.

▶ 완화의료주간 광주전남 권역 캠페인 참여



10월 9일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바로 알기 및 다양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캠페인을 하였다. 리플렛 제공, ox 퀴즈, 즉석 사진 촬영 등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리모델링

10월 25일~11월 4일 국고보조 사업비로 낙후된 시설을 재정비하였다. 센터 내 도배공사, 화장실과 오물 수거실 개선으로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만들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야유회



11월 7일 충남 청남대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자연속에서 서로 간의 친목 다짐과 마음의 충전으로 내적인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고 소진된 부분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7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개최



9월 28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자문형 호스피스에서의 팀의 역할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라정란 협회장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법과 호스피스 실무, 박명희 교육학술 이사장의 자문형 호스피스 운영 계획 강의와 자문형 호스피스에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의사(인천성모병원:김대균), 간호사(서울대학병원:홍진외), 사회복지사(서울성모병원:손미연), 자원봉사자(여의도성모병원:김정애)가 분야별로 발표하였다. 호스피스 관계자 117명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전문기관에서 많이 참석하여 현재 자문형 호스피스를 실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제3회, 4회 이사회 개최

7월 12일, 10월 2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3회 이사회에서 세미나 주제(자문형 호스피스에서의 팀의 역할과 도전 과제)와 개최 방안, 4회 이사회에서는 세미나 평가와 협회 발전 방향 및 차기년도 임원진을 논의하였다.